



하얀 반점 백반증

‘세살 피부 여든까지’... 조기 치료해야

얼굴이나 손 등의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거나, 탈색되어 보이면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파괴되고, 그 결과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후천적인 색소성 피부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외상이나 햇볕에 의한 화상 등을 간접적인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발생연령은 출생 직후부터 노년까지 다양하나 대개 20세 전후 빈번하게 발생하며, 병변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전신 혹은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주로 자극을 받기 쉬운 신체부위인 손·발·무릎·팔꿈치 등에 자주 나타난다.

▷ 백반증의 특징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

백반증은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병은 아니지만 얼굴, 손 등과 같은 노출부위에 있을 경우 미용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사회활동 기피,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게다가 환자에 따라 다양한 예후를 보이고 주로 장기적인 임상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다루기 힘든 난치병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백반증의 특징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생각되어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도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외선 치료, 엑시머 레이저, 수술 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어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병의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완치도 가능하다.

백반증 치료에서 중요한 여러 요인 중 발병 후 치료까지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반증 초기에 치료를 하면 피부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멜라닌 색소세포로 인해 치료가 빠르고 또한 다른 신체부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따라서 발생부위가 작을 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치료 결과도 좋다.

초기에 발견된 백반증은 기존의 연고 도포, 광선 치료와 같은 단일 치료 이외에도 단기간의 집중 약물치료와 표적 광치료(광선치료, 엑시머 레이저)를 병합한 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기집중치료는 일측성으로 나타나는 분절형 백반증에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백반증 병변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신봉석 피부과 교수가 얼굴에 흰색 반점이 생긴 회사원에게 벨로시티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원인... 충분한 휴식·숙면 도움

‘벨로시티 레이저’ 통증적고 간편해 소아환자도 안전

수술요법을 함께 사용해 치료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한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백반증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로를 피하고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자극을 받아 상처가 생기면 병변이 새로 발생하거나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심하게 긁는다거나 외상을 피하는 등의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종합 비타민과 같은 보조 영양제 등을 복용하는 것도 백반증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벨로시티 레이저 치료

최근 조선대학교병원 피부과는 기존의 백반증 치료법인 약물요법, 자외선 치료, 표적 이식술 등과 더불어 최근 2세대 엑시머 레이저인 벨로시티 레이저(XTRAC Velocity Laser)를 도입해 백반증 조기 치료에 앞장

서고 있다. 백반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엑시머 레이저는 통증이 적고 간편하며 입산부나 수유여성, 소아환자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다. 특히, 벨로시티 레이저는 기존의 엑시머 레이저보다 치료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 넓은 면적의 치료도 빠른 시간내 시술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특히 원하는 부위만 치료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에는 불필요한 자외선 노출을 방지하면서 정교함을 더해 빠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백반증은 자연 치유가 잘되지 않고 치료 또한 쉽지 않은 질환이다.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거나 커진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즉시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 하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빠른 완치의 방법이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심장중재술의 첨단치료 발전 보여줬다”

전남대 ‘광주 심포지엄’ 성황... 세계 석학들 지식·정보 교류

국내의 심장중재술 전문가들이 총집합하는 ‘제10회 광주심장중재술 심포지엄’(Gwangju Interventional Cardiology Symposium·GICS) 및 실연회가 최근 전남대병원 명화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치료기술개발 특성과 센터와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재술 전문가와 심장영상 전문가 그리고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전공의, 학생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정재 전 전남대총장의 정년퇴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강 전 총장의 ‘전광회조’라는 제목의 기념특강과 정명호 교수의 ‘전남대병원 심도자 및 중재술의 역사’라는 특강도 곁들여졌다.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심장중재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명의 국내외 심장학자들이 참여해 시술과 활발한 토론을 펼쳐왔다. 심장센터는 이러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남대병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9년 연속 대한심장학회 최다 논문을 발표했으며, 2011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72편의 국제학회지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한심장학회로부터 지정받아 진행해 온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에 관한 국제학회지 게재 논문 목록집과 대한 심장학회 홈페이지에 이달의 중재술 영문판 책자도 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최첨단 ‘심장혈관 CT’ 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균익)는 최근 도입한 심장혈관 및 저선량 CT ‘128ch MD-CT(Multi-Detector CT)’에 대한 시범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최첨단 128ch MD-CT는 뛰어난 공간 해상도와 선명한 영상, 초고속 촬영이 가능해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CT에 비해 월등히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기존 CT 검사비와 동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질환 및 심장질환검사, 대동맥 및 순환기 계통이상, 소화기·



간·담낭·췌장을 비롯한 혈관이나 장기의 모양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3차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점이 돋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혈액생체재료학회 심포지엄 16~17일 조선대 치과대학서

2012년 국제 혈액생체재료학회 심포지엄이 16일~17일 조선대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혈액 유래 생체재료의 연구와 임상 적용의 최근 경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대만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전문가 14명이 혈액을 이용한 재생술에 대해 발표한다.

국제 혈액생체재료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Blood Biomaterials:ISBB)는 혈액에서 추출한 성장요소와 이를 생체재료에 적용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과 개원 치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ISBB 국제학술회의장인 김수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혈액관련 생체재료에 대한 최선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유방암 재발률 22.6% 환자 95% 10년내 사망

유방암 환자는 5명 중 한 명이 치료후 재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세인트 제임스 종양학연구소(St. James' Institute of Oncology)의 에덤 글래저 박사가 1999년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 1000명의 의료기록을 조사분석한 결과, 치료 후 재발률이 평균 22.6%로 나타났다. 그리고 테일러 메일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재발된 시기는 치료 후 평균 3년4개월이었다. 유방암이 재발한 환자는 안타깝게도 95%가 10년 이내에 사망했다. 영국에서는 매년 4만8000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 중 1만1500명이 사망한다. 이들의 10년 생존율은 60%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어린이 성조숙증 급증

7년생 19배... 97%가 여아 식습관 변화·비만 주원인

사춘기가 너무 빨리 시작하는 성조숙증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성조숙증으로 확진 후 치료받은 어린이(여 9세·남 10세 미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94명에서 2010년 3686명으로 7년새 19배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여아의 성조숙증 유병률은 0.12%, 남이는 0.002%로 여아의 성조숙증이 훨씬 많았다. 확진 후 치료받은 여아 수는 총 8037명으로 남아 231명보다 35배가량 더 많았다.

박 교수는 성조숙증 급증 원인으로는 “식습관의 변화, 비만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환경호르몬”등을 꼽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부분 별하게 치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 미만, 남아는 9세 미만에 너무 일찍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인 성숙이 신체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오히려 작을 수 있다.

성조숙증을 예방하려면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체중을 관리해야 한다. 체지방이 생기면 지방세포에서도 여성호르몬이 생기고 렙틴이란 물질을 만들어 사춘기 시작 신호를 높인다.

최근에는 사춘기를 지연해주는 주사를 4주에 한번씩 맞춰 성호르몬 농도를 낮추기도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광주방산지물', '부원중고타이어', '자연을담다', '천지유', '장수숯불갈비', '조국회공인중개사', '달콤Story', '담양보양탕', '두암인력대기소', '동그라미언어학습센터', '아이엠헤어', '미꾸리추어탕', '호담', '타이어프로첨단점',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대동철학작명원', '김가네동태탕', '기담철학원', '리바트광주전시장', '오리오리화정점', '국제댄스스포츠학원', '상무홍어애접', '큰바다야구짬', '오리명가', '이연안과의원', and 'By One Story'.